

# 與 “국민 목소리 듣겠습니다” 전국 순회

## 6·13 지방선거 체제 전환... 16일~내달 8일 경청투어 주중 후보자 검증위 설치... 인사배제 7대원칙 반영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토대 마련과 각종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연초부터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시·도지사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 선거 전 150일(1월 14일)에 설치하도록 당규에 규정돼 있다.

검증위는 당헌·당규상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자격 심사 등을 담당하며 민주당은 청외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달 중·하순에 지방선거 기획단을 지방선거대책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지방선거대책본부는 산하에 전략, 정책, 공약, 홍보 등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을 두게 되는데, 이를 통해 지방선거 기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공약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질 수 없는 선거’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닥을 다지면서 민생 쟁거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싸움이 수준의 승리를 거두지 않는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내 특정 세력이 본격적으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나서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 경선 룰과 공천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유리한 지방선거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당내 경선 룰을 놓고 벌써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룰을 만들기 보다는 공정한 경선만이 논란을 없애는 길”이라고 말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여론이 고공 지지율에 안주하고 있는 사이 야권이 전열을 정비하고 선거에 압박해 여론 견제심이 살아날 경우 지방선거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금의 고공 지지율에 취해 공천을 둘러싸고 세력 다툼을 한다면 이는 시대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며 민심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몸을 낮추고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년인사회서 마주친 秋-劉 5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컨스턴 호텔에서 열린 현정회 신년인사회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오른쪽)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와 ‘선긋기’

## “독자 교섭단체 구성 서로에게 도움... 접촉·영업 계획 없어”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이른바 ‘(가칭)개혁신당’ 창당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들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소야대’라는 정치 환경에서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개혁신당 추진 세력과 협력적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의 개별 접촉은 없다”며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영업할 계획은 없으며, 당 차원의 접촉은 아예 없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의원 개인 차원의 만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당 문제

에 민주당이 관여할 시점은 아니다”며 “현재는 어떤 정책과 노선으로 변화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당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인사들을 받아들이는 데 별다른 의지가 없는 여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여당 내에는 개혁신당이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꾸린 채 존속하는 것이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들린다. 남북화해 정책을 지지하는 개혁 세력인 만큼 민주당의 국정과제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권의 한 인사는 “국민의당 개혁신당이 의원 20명 이상으로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개혁신당과 일단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즉 통합신당과의 관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신당이 중도보수에서 결국 보수통합으로 갈 것인 전망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 통합신당의 노선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지를 둔다는 것이다.

변수는 있다. 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 일부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민주당이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때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개혁신당 측과의 ‘거리 두기’라는 현재의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한국당 지방선거 패배 위기감 ‘대국민 탄핵 반성 행사’ 검토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 준비에 앞서 ‘대국민 탄핵 반성’ 행사 개최를 검토 중이다.

7일 한국당에 따르면 대국민 탄핵 반성 행사는 1기 혁신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제기돼 온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술한 사과를 하지 않고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구체적 형식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홍준표 당 대표가 이달 중순까지 전국 권역별로 진행하는 신년하례회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홍 대표는 1회성 ‘정치 쇼’로 비칠 수도 있다 여기고 고민도 했지만, 당에 쐬어진 탄핵의 이미지를 견디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사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

# UAE 칼둔 오늘 방한

## 왕세자 최측근... ‘특사 의혹 해소’ 주목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정장이 8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칼둔 행정정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초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예방했을 당시 배석한 인사물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특별’을 받고 방한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장은 8일 오전 9시에 전용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1박2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한 뒤 10일 새벽(시30분)에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칼둔 정장이 방한 기간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와 어떤 인사들을 예방 또는 면담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UAE 인사 방문과 관련해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칼둔 정장은 방한기간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UAE를 방문했던 임 실장과 면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 실장은

지난달 9일부터 2박4일간 일정으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했으며, 이후 국내에서는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UAE와의 관계가 나빠져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에서부터 파병 중인 아크 부대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를 수정하려다가 UAE가 불만을 제기해 임 실장이 급히 UAE를 방문한 것이라는 추측까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칼둔 정장의 방한이 임 실장의 UAE 행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칼둔 정장은 또 임 실장을 특사로 파견했던 문 대통령을 직접 예방해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7일 모하메드 왕세제와 통화할 당시 “바라카 원정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UAE 방문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 與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안 마련

## 금융혁신·ICT 융합특별법 등 4개로... 2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기존의 규제프리존법을 독소조항도 제법 많고 핀테크 등 발의 당시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도 있어 준비가 필요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전략사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이 핵심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시범사업 신청·추진과 관련한 제도 및 산업 융합 제품·서비스의 지원사업 등을,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규제 등을 다룬다.

또 ICT융합특별법은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신기술·신서비스의 특례 부여 등에, 지역혁신성장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성장지구 지정·운영, 세계재정 지원 등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은 조문이 95개나 될 만큼 덩어리가 컸다”며 “게다가 한 바구니에 한식, 일식,

중식이 한데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상태라 현재 한식은 한식대로, 일식은 일식대로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법안을 보면 독소조항도 제법 많고 핀테크 등 발의 당시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도 있어 준비가 필요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전략사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이 핵심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시범사업 신청·추진과 관련한 제도 및 산업 융합 제품·서비스의 지원사업 등을,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규제 등을 다룬다.

또 ICT융합특별법은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신기술·신서비스의 특례 부여 등에, 지역혁신성장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성장지구 지정·운영, 세계재정 지원 등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은 조문이 95개나 될 만큼 덩어리가 컸다”며 “게다가 한 바구니에 한식, 일식,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26	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0
	유아교육과	2	0
예능	음악학과	7	0
	실용음악학과	10	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0	0	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0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0	0	0
	유아교육과	0	0	0
예능	음악학과	0	0	0
	실용음악학과	0	0	0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 형 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00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2018. 2. 6(화) 오후 2:4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00	2018. 2. 6(화) 오후 2:40
	평생교육학과(M.Ed.)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00	2018. 2. 6(화) 오후 2:4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00	
		실용음악학과(M.A.)	00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입학문의 ▶ 학부 0621605-1114**  
**대학원 605-1115**